



# 해외양계업은 지금...

## ■ 국제동향

세계 가금육 생산량은 1990년에 총 2천4백만 톤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해당된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육계협회회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닭고기 수입량은 130만톤으로 나타나 1989년에 비해 6%가 신장되었다.

이중 일본이 닭고기 가공품의 1/4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소련, 싱가포르, 홍콩이 40~45%를 수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총생산량에 비추어 1백30만톤은 많은 양일지 몰라도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중으로 보아서는 매우 적은 편이다.

EC국가인 프랑스는 생산량의 30%를 수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입국은 주로 중동지역이었다.

브라질 또한 수출국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15%를 수출하고 있다. 브라질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면에서는 낮은 편이다. 농장에서의 생체출하가격은 1파운드당 42센트이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가금육 수출이 원활해지고 있다. 엔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150이하로 낮아졌을 때는 250,000톤 이상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 ■ 중국

### 대규모 양계장 등장

최근 10년간 중국의 가금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 종계, 사육규모, 사료, 사양관리 등 각 부분이 새로운 양상을 보여왔다.

북경이나 상해 등 주요 도시근교에 국영양계장이 건설되고 있다. 이들 농장중에는 수입 부화기, 급이기, 처리기계 등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많은 농장에서는 중국에서 제작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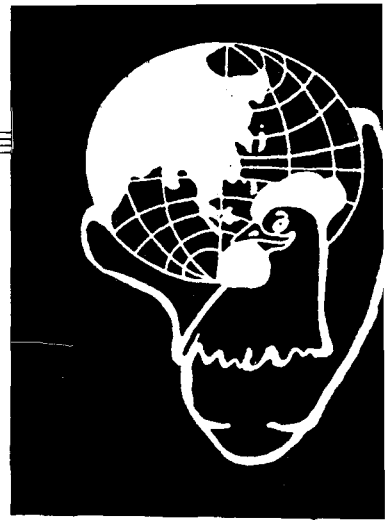
북경시의 근교에서는 국영자동화 채란양계장이 6군데나 있는데 20만수에서 50만수까지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중규모의 채란농장은 70개소 정도가 있고 국영화하여 집단으로 경영되고 있다. 도시근교의 양계농가는 많지만 과거와 같이 소규모 사육농가는 없고 몇천수씩 사육하는 전업양계농가로 변화하였다. 가금육을 생산하는 대규모 브로일러 회사가 2군데나 있는데 사육에서부터 처리생산까지 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백만수 정도 되고 있다.

북경은 요즈음들어 계란이나 가금육을 자급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초과 생산된 양은 중국 내 다른 곳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중국의 계란생산량은 72만톤 이상을 생산 1인당 평균 계란생산량은 6.4kg였다. 같은 해의 가금사육수수는 22억1천만수였는데 닭이 80%를 차지

# 해외양계업은 지금...



한다. 가금육 생산량은 282만톤으로 1인당 생산량은 2.5kg로 세계 평균 5kg보다 낮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이 소비하는 육류의 80%는 돼지고기이고 가금육은 11%로 낮았다. 역시 세계평균 육류소비량중 돈육 비중은 40%이고, 가금육이 20%, 쇠고기가 36%로 집계되고 있다.

## ■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신흥 양계생산국

나이지리아의 가금육 소비는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소비가 두드러졌던 때는 1977년부터 1985년 사이로 이기간에는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였다.

1985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275,000톤으로 서아프리카에서 2번째 계육생산국이 되었다. 이간동안에 계육소비가 증가한 것은 유가가 상승한 나머지 수입이 많은 데서 기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에 두드러진 현상은 병아리용 백신과 사료, 가금육 가공 또는 계란 처리용 기자재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가금육 선호는 쇠고기보다 높아 83년, 84년, 85년에 262,000톤, 258,000톤, 275,000톤의 유통량을 기록하였다.

두번째로 유통량이 많았던 쇠고기는 같은 기간에 235,000톤, 225,000톤, 221,000톤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의 도계장의 70%는 오일가격이 호조를 보일때 세워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지리아의 닭고기소비패턴도 이 기간에 변화를 보였는데 대부분이 생닭상태로 공급되는 닭을 선호하고 있다. 닭고기 공급은 주로 대도시근교인 라고스, 카노, 아바단, 이누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계장은 대부분 인티주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시간당 5천에서 8천수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 ■ 덴마크 EC국가에 가금육 수출증가

1990년 8월까지 덴마크의 가금육 수출량은 총 47,000톤에 달한다. 이양은 1989년 보다 13%가 증가한 양이다.

덴마크의 가금육 수출은 제 3 국가에서는 11%가 감소한 반면 EC국가의 수출은 93%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이 늘어났는데 이중 영국에 3배 이상을 수출하였다. 그동안 영국으로의 수출은 자국 생산량이 증가하여 감소세에 있었다.

특히 덴마크는 중동을 포함한 주변국에 있는 제 3국으로의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 해외양계업은 지금...

## 새로운 만성질병

( Avian Intestinal Spirochaetosis )

1984년 네덜란드의 가금연구소( GvP )가 Treponema 를 발견한 이래 이 질병은 현재 대규모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6년전 양계전문가 F.G.Davelaar 씨는 산란계에서 Treponema 를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 질병은 장기를 약화시키는 박테리아성으로서 약한 설사증을 동반한다. 감염된 닭은 일반적으로 산란율이 떨어지고 난황이 탈색되며 난각이 약해지는데 계군중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주시할 만하다.

### 돼지와와의 관계

이 질병은 스피로헷타( spiro chaeta )라는 작은 나선형 박테리아가 원인균인데, 돼지하리의 원인이 되는 Treponema hyodysenteriae 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 질병은 Treponema 로 부르게 되었다. 이 질병은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영국 등 그 밖의 나라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Avian Intestinal Spirochaetosis 로 알려졌다. 이 질병은 Spirochaetes 에 의해 발병되는데, 열대성 감염을 보이는 Fowl Spirochaetosis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Treponema 는 비육돈을 사육하는 농장근처의 양계장에서 더 많이, 또는 더 낮게 발병되는데 전과과정에서 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닭에서 채취된 샘플을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돼지하리 Treponema 와는 완전히 다르다.

### 미해결된 장기 문제

GvP (가금 연구소)는 일년에 수십건의 Treponema 발생을 진단하고 있다. 1988년에 GvP는 네덜란드 내의 이 질병 확산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Treponema 와 연관시킬 수 있는 불확실한 장기내 병소가 25%나 되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스피로헷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만을 개발했는데 Immuno-Fluorescent Test (면역형광시험법)는 맹장내 잔류물이나 점막을 이용하게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조제된 아내톤을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없으나 혐기성 박테리아에 잘 듣는 화학요법제를 사용하면 Treponema 퇴치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기 보다는 피해를 줄이는 정도이다. 이 질병은 만성적이고, 규칙적으로 재발생되며 특히 추운 계절과 같은 부적합한 환경에서 발병된다. 스피로헷타에 감염된 닭은 다음과 같은 임상증상을 보인다.

- 때묻은 계란
- 높은 사료요구율
- 탈색된 난황
- 일당중체량 감소
- 산란율 감소
- 검은 황색의 거품형 분변

( Misset world Poultry 90.12/91.1 )